

■ 지구촌에 새긴 KOICA의 발자국 (1991~2009)



(박대원, 푸른세상,
1007쪽)

우리나라와 개발도상 국가와의 우호 협력관계 및 상호 교류를 증진하고 이들 국가의 경제 사회 발전을 지원함을 주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한국국제협력단(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KOICA)이 그간 시행하여 온 대외무상원조사업을 정리한 책자를 발간하였다.

본서는 KOICA가 창립 이래 지난 18년간 전 세계 70여 개국을 대상으로 500여 프로젝트를 지원한 성과를 집대성한 우리나라의 무상원조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책이다. 박대원 KOICA 총재는 발간사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해외 무상 원조를 담당하는 KOICA가 창립 18년 만에 처음으로 지금까지 해온 모든 사업을 한권의 책에 정리했습니다. 1천 쪽이 넘는 분량만으로도 지구촌에 남긴 KOICA의 대장정을 가늠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KOICA가 어떤 일을 하는지 잘 모르는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분들께 KOICA가 지구촌 이웃의 꿈과 희망을 위해 걸어온 여정을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KOICA는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그 길을 걷고 싶기 때문입니다.”라고 취지를 밝히고 있다.

현재까지 우리나라가 지원한 해외 무상 원조 규모는 약 48억 달러 수준이다.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나라가 받은 원조 규모가 약 128억 달러(현재 가치 약 600억 달러)이며 국제사회의 경제적, 기술적 도움을 받아 우리가 경제개발을 할 수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이제는 시간이 흘러 국력이 신장된 우리나라가 굶주리고 질병에 시달리는 가난한 나라들을 도울 때가 된 것이다.

KOICA는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중동과 CIS 등 지역 34개국에 해외 사무소를 두고 국내 초청 연수, 전문가 파견, 해외봉사단 파견, 개발 조사, 인프라 구축, NGO 지원, 재난 복구 지원, 국제기구 협력 사업 등 다양한 형태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의 개발도상국 중에서 가장 성공적인 경제개발을 이룩한 나라로 평가되고 있는 바, 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조(ODA) 규모와 전문성이 선진국에 비해 제한적이기는 하나 우리는 경제개발에 관한 지식과 경험, 개발도상국에 적절한 기술 및 지원 체제 등을 보유하고 있다. 선진국이 과거 제국주의 세력으로 식민지를 경영한 사실이 있어 개발도상국으로부터 원조와 관련하여 의혹의 눈길을 받기도 하나 우리나라는 그러한 역사가 없다. KOICA는 우리의 협력 여건이 다른 원조 공여국의 경우와 다르다는 점에 비추어 비교우위분야에서의 특성있는 협력 모형을 개발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9년 11월 25일 경제협

력개발기구(OECD)의 개발원조위원회(DAC)에 24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하였다. DAC의 가입 요건은 ODA 총액이 1억 달러를 넘거나 국내총소득(GNI) 대비 ODA 비율이 0.3%를 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2004년부터 ODA 규모가 1억 달러를 넘기 시작했다. DAC 가입으로 우리나라는 ‘원조를 주는 나라’로 국제사회에 공식 데뷔함으로써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원조 수혜국에서 원조 공여국으로 신분을 바꾼 나라가 되었다. 한때 개발도상국의 부패와 비효율적 운용으로 원조가 효과를 보이지 못하자 선진국들이 원조를 기피하거나 줄이는 원조피로(Aid Fatigue)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으나 우리나라가 그에 대한 반증의 좋은 예로 주목되고 있다.

2000년대 들어 세계화 현상에 따른 선·후진국간 빈부격차 심화 문제가 국제사회의 관심사가 되었으며, 특히 9·11 테러 사건을 계기로 개발도상국의 빈곤 문제가 국제적 불안 요소로 인식되면서 개발문제는 국제사회의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UN은 새천년 개발 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로 절대 빈곤 및 기아 퇴치, 보편적 초등교육 달성, 양성 평등 및 여성 정책, 아동 사망률 감소, 모성 보건 증진, HIV/AIDS 등 질병 퇴치, 지속 가능한 환경 구축, 개발을 위한 범지구적 파트너십 형성 등 8개의 개발목표를 제시하였다. 이 중 ‘개발을 위한 범지구적 파트너십 형성’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ODA의 양적 확대 및 질적 성장이다. 지난 해 우리나라의 ODA 규모는 약 8억 달러로 GNI 대비 0.09%이다. 근자

에 우리나라의 ODA 규모가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는 있으나 아직도 UN의 권고치인 0.7%에는 물론이고 DAC 평균치인 0.3%에도 크게 못 미친다. 정부는 ODA 규모를 2015년까지 0.25%(연간 약 30억 달러)까지 늘릴 계획이다.

원조대상국의 선정 및 지원 방식에서 소규모 다국가 분산지원 방식과 중점국가 집중지원 방식은 각각의 논리를 가지고 있으나, 현재 OECD/DAC 회원국들은 자국의 정치, 경제, 사회 및 역사적 유대관계를 중심으로 ‘집중과 선택’의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를 보면 국별 우선순위는 우리와 정치적, 경제적 그리고 지리적 유대관계가 큰 아시아지역을 중심으로 국별 배분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최빈국이 가장 많은 아프리카지역에 대한 비중은 점차 축소하는 경향을 보여 왔다. 그러나 최근 정부는 아프리카지역의 자원과 성장 가능성에 주목하여 향후 3년 내에 이 지역에 대한 ODA 공여 규모를 2배로 확대할 계획이다.

본서에는 KOICA가 그동안 시행한 협력사업의 규모, 기간 및 지원 내역과 함께 현재 모든 원조기관이 ODA정책 수립의 기초로 하고 있는 ‘새천년 개발 목표’의 국가별 추진 현황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원조대상국을 ‘중점협력국가’, ‘일반협력국가’, ‘기타국가’의 3개 범주로 나눈 지역별 분포도가 실려 있으며, 수원국의 인구, 국토 면적, 기후, 1인당 국민소득, 문자 해독률, 인종, 종교, 정치 체제, 공용어 등 참고 사항을 수록하고 있다.

본서에서 KOICA가 우리나라의 해외 무상 원조를 통하여 개발도상국을 도와

지구촌의 가난과 배고픔을 없애고, 사막을 옥토로 만들며,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놓는 일에 힘쓰고 있으며, 아울러 온 인류의 소망을 담은 '새천년 개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길로 국제사회와 함께 나아가고자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 과정에서 원조를 주는 우리들의 입장이 아닌 원조를 받는 그들의 입장에서 무엇이 진정으로 필요한지 고민하고, 또한 국민의 세금인 '공적개발원조'가 보다 효율적이고 성과 있게 쓰이도록 기

관 경영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원조 집행 체계의 선진화도 이뤄나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KOICA는 이를 통해 무상 원조가 대한민국 국가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개발도상국과의 우호 협력 관계를 증진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며, 이 모든 일은 국민과 함께 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함으로 국민의 지지와 성원을 얻는 원조 사업을 하기 위해 노력할 것임을 천명하고 있다. (편집실-최영철*)

외교

* 전 KOICA 감사(2003년~2005년)